

‘AI·에너지’ 미래산업 육성 전략 4人4色 경쟁

6·3 지방선거 D-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공약 비교 <1>일자리·경제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산업·경제·농업·교통·청년·복지 등 분야별 공약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후보별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분석한다. >관련기사 2·3·4면 /편집자註

민형배, 200조원 호남 집중 배정 구상
이정현, 대기업 유치...특구·특례패키지
이중옥, 초저금리 공공은행 설립 제안
강은미, 노동국 설치 공공성 확대 강조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일자리·경제·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RE100 산업 기반, 첨단제조 벨트 구축 등을 앞세워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후보들은 미래산업 재편,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 노동·골목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재계 300조원 지역투자, '호남 200조 배정'을 내세우며 대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대전환 구상을 전면 배치했다. 300조원 규모의 지역투자 계획 가운데 200조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 차등요금제 및 RE100 직공급 체계 구축,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역 대학 연계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 등을 300조원 규모 기업 투자 유치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남광주 주도성장 '20조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 투자 분야와 우선순위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20조 시민경정투어'로 전남·광주 전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을 도입해 초첨단 전략 산업 투자공사 설립, 삼성·SK 유치, 시민 공유자본 펀드, 지방채·공공금융·연기금을 결합한 혼합 투자구조 실현도 공약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햇빛 기본소득 마을,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 초광역 수소·지역전력망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 공약으로 AI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AI 반도체 수도, 광주 자동차산업 AI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당선되면 1년 안에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제 공약

| 정당 | 후보 | 공약 |
|--------|-----|---|
|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 -재계 300조 지역투자 '호남 200조 배정'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 도입 -AI고속도로(데이터·전력·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산업고도화 |
| 국민의힘 | 이정현 | -에너지·데이터·AI 제조산업과 결합 -삼성·SK·현대·포스코·한화기업 유치 -미래차 100만대 생산 -12개 미래산업특별법 패키지 -초강력특구·초강력특례 패키지 |
| 진보당 | 이중옥 | -전남광주 공공은행설립초저금리대출 -RE100반도체·피지컬 시산업유치 -공공 전력판매공사 RE100전력 자가 공급 -광주 80만대 미래차 생태계 구축 -광산·함평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
| 정의당 | 강은미 | -공공부문 일자리 적정임금·노동보장 -노동국 신설 '노란봉투법 지원단' 구성 -지역재투자조례 제정·특별시공공은행 설립 -특별시투자공사 설립 농수산·미래전략산업육성 |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대기업 유치와 미래산업특별법 특례 패키지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데이터·AI는 반드시 제조산업과 함께 가야 한다며 원물 생산지에서 부가가치 생산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6·3地選 꼭 투표하세요”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오전 광주 서구 비비에르 품양 본점에서 기표 모양이 새겨진 '선거빵' 출시 행사가 열려 제행사와 광주 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조영권 기자

미래차 100만대 생산, 전력망·산단·항만의 국가 전략 수준 재설계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삼성의 AI 미래산업 본사급 기능 유치, SK의 데이터센터·에너지 산업, 현대의 100만대 미래차 도시, 포스코의 이차전지 풀밸류체인, 한화의 방산·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기업 유치 공약도 내놓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산업특별법 패키지 12개, 초강력특구 5대 패키지, 초강력특례 패키지를 발

표했다. 미래산업 특별법 패키지에는 AI 실증특구 특별법, 데이터센터 전력특례법, 에너지 가격차등제 도입법, RE100 기업 특구법, 반도체 후공정 특화지구, 대기업 투자패스트트랙법 등이 포함됐다. 초강력특례 패키지로 전력요금 특별 할인(산업용 최대 30%), 법인세·취득세 10년 면제, 토지무상 또는 장기 임대, 노동·근로시간 유연 적용, 외국인 비자 즉시 발급, 환경·입지 규제 패스트

트랙 등을 제시했다. 진보당 이중옥 후보는 공공은행 설립과 공공 전력판매공사, 산업 지도 대전환을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했다. 이 후보는 시·도, 교육청 예산과 정부 인센티브 등 총 2조 1천억원을 예치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5월18일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운행

시민·방문객 누구나 이용 가능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도 포함

광주시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월18일 광주지역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무료 운행한다. 무료 운행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시민과 함께 일상 속에서 되새기는 한편, 기념식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

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 6·7면
무료 이용 대상은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며 광주시민을 포함해 당일 광주를 찾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실제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정산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카드 태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교통카드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운전원 교육, 대시민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5·18 45주년을 기념해 17-18일 이틀간 실시했던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무료 운행 이용 건수는 총 6만6천448건으로 집계됐다. /기수희 기자

| Today | 5면 |
|--------------------------|-----|
| 전국 첫 정원관광 프로그램 선보인다 | 5면 |
| 변호판영치 집행률 겨우 10% '유명무실' | 6면 |
| 장타력 1위, 팀타율·득점권 타율은 '바닥' | 16면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선거일 투표

일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지정된 투표소
*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일시 |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이드

-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의정선거
- 지방의회의원: 시·도 의원선거(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지역구), 시·도 의원선거(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선거(비례대표)
- 지방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 세종·제주(4장):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지방선거 투표 전 체크리스트

- 일정 확인하기
- 내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 신분증 챙기기
- 유의사항 확인하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일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지를 찾는 등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